

성도의 빛 10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0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관

성도의 빛

1987년 10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링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스 엠 페리모어, 테릭 에이
커스버트.

통 권 : 제258권, 제23권, 제10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8710KO
PRINTED IN KOREA 10/87
© 1987년 재판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사업이 시작됨”, 1888년 조셉 에이치
던 장로와 그의 아내가 선교사로 사모아에
도착하는 것을 묘사하여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가 그림. 이번호 “모래와 바다와
복음 그물” 참조.

목차	33	영이 주제를 바꾸었음	33	영이 주제를 바꾸었음
		줄리안 시 로우		
2	대관장단 메시지 :			
	빛을 갖고 생활하자	34	그룹만 부부 이고와 베스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델린 테커	
6	방문 교육 메시지 :	37	물론 메시지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청소년란	
7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38	거절하면서도 친구를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잃지 않는 방법	
			크리스 크라우	
14	모래와 바다와 복음 그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의 예술	42	밤중의 노래	
			리사 에이 존슨	
18	나의 흑인 조상을 찾음			
	캐롤 배티	46	거미 데이비드 브린리	
19	똑같은 시간	47	신앙을 배움 시안 베시	
	린시 알 커티스			
			성도의 빛 어린이란	
22	고난의 교훈			
	산드라 에프 스트랜지	2	예수님이 신앙을 가르치심	
26	꿈임없이 가르쳐 인도하라	4	아우보를 위한 샨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실리더 브라운	
28	후하게 줌 :	6	이 예언자는 어느 분일까요 ?	
	윌터 스토버-관대함에		제나비 엘그린	
	관한 전설적인 인물			
	멜빈 레비트	7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31	할머니의 축복			
	커크 에프 헤이즌	8	심심풀이	
			교회 및 지역	
32	새로 태어난 선교사		소식	
	수전 엠 프리본			





“빛을 갖고 생활하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열

왕기에 보면 울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온 여인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었으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두 아들을 노예로 팔기 위하여 테러러 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여 그녀가 기름을 충분히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왕하 4:1~7 참조)

“빛을 갖고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그 이후로 현재까지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현명한 훈계입니까!

우리는 온 세대를 통털어 현인들의 말씀에서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 훌륭한 가르침을 수없이 반복해서 찾아 보게 됩니다. 세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지 말고 꺾 주지도 말지어다. 돈을 꺾 주면 돈과 친구를 모두 잃게 되는 일이 흔히 있느니라...”(1막 3장, 75~76번째 대사)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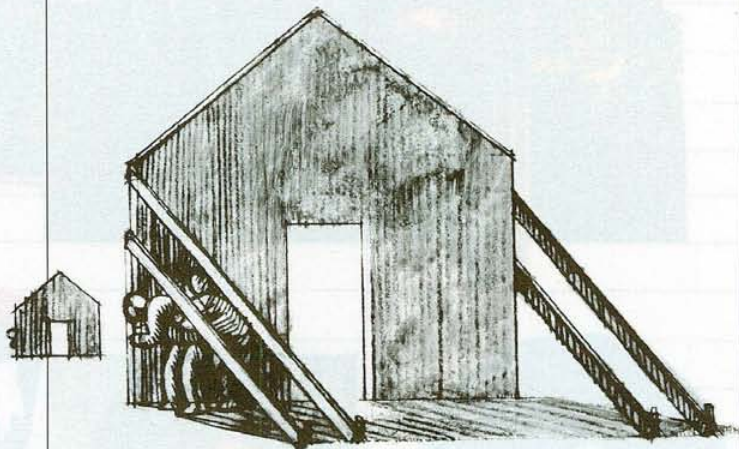
“가난은 어렵지만 빚은 참혹하다.”(찰즈 해턴 스퍼전)

“빛을 지게 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자유를 또 다른 어떤 힘에게 내주고 있는 것이다.”(벤자민 프랭클린)

진리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음

프랭클린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시대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지혜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감받은 지도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빛을 청산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수입이 적더라도 옆집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척자 조상도 우리에게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고 빛을 청산하는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빛을 갠고 생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봉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여 안심하고 구매 계약을 맺으며 직장을 잃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수입이 끊겨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수입을 저당잡힙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크게 걱정되는 것은 영적인 가치관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수입이 적더라도 옆집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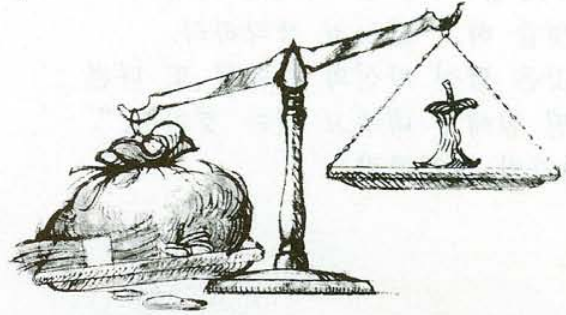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수입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생길 수입을 빌어 쓰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없이 지출하여 수입이 끊겨지는 날에는 구제 기관이나 교회에서 재정적인 원조를 해줄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지역 사회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수입 내에서 구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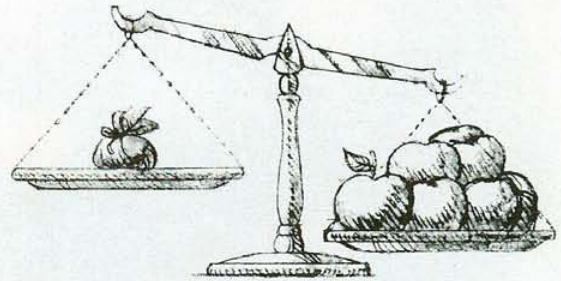
흔히 상당히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월부금을 내는 일에 말려 들지 않도록 엄숙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저축하여 후에 사도록 하십시오. 훨씬 더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싼 이자와 다른 경비를 절약하게 될 것이며 지금 절약하는 돈으로 나중에 현찰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비싼 이자와 다른 경비를 절약하십시오.



지금 절약하는 돈으로 나중에 현찰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 때 구입하십시오.



평장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타당한 것, 예를 들면 집같은 것을 사기 위하여 빛을 저야 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고 자신의 신용을 현명하게 활용하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거나 큰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십시오. 이자 지불이 큰 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세금과 수리비를 가산하면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 자신의 집을 장만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검소하게 시작해 준 동반자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케이 스티븐슨 그림

“**빚**을 지게 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자유를 또 다른
어떤 힘에게 내주고 있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버려 두지 마십시오. 적어도 현재로서는
저축하기 위하여 사치를 없애십시오. 자녀 교육과 자신의
노년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주께 간구함

가족의 수입이 적으면 적을 수록 동전 한 푼까지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지출과 저축은 가족이 더
큰 안정과 기회와 교육과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면 집에 대한 월부금을 빨리 갚고 교육과 혹시 수입이 줄어들 시기와 장래에 닥칠지 모르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합시다.

남보라는 듯한 소비가 아니라 현명한 청지기 직분을 행하는 것이 인간과 물질적인 부의 합당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들의 권고에 귀기울일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선지자 엠올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앨마서 34 : 24~25)

나는 엠올레크의 권고에 덧붙여 여러분이 빛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빛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을 벗어나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할 신앙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빛을 갠고…생활하라.”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귀기울이십시오. 빛에서 해방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빛인 십일조를 먼저 내십시오. 그러면 이웃에 대한 빛을 좀더 쉽게 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이 훈계에 귀기울입니다. “빛을 갠으십시오. …더 이상 빚지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빛을 갠 일에 있어서 신속하게 행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우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4년, 303페이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영할 때에는…빛에서 벗어나십시오. …번영하고 싶고…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의무를 행하십시오.”

(복음 교리, 제 5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39년, 259~60페이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님에게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말일성도가) 화평과 번영과 재정적인 성공을 누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복음 표준,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60~61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생활할 때 우리 가슴 속으로 화평과 만족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빛에서 벗어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간단히 말해서 “빛을 갠고…생활”하라는 신권 지도자의 영감받은 권고에 귀기울일 지혜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언제나 빛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수입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2. 만일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하고 타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빚져야 한다면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고 큰 부담을 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합시다.
3. 우리 자신이나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버려 두지 맙시다.
4. 우리가 부채를 해결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지불할 것은 그때그때 지불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빛을 갠고…생활하라”는 권고가 얼마나 건전한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한다.
2. 이 기사에 가족이 소리내어 읽거나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나?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애 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 통하고...”

목적 :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이해함

최

근에 어떤 자매는 언니가 교통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매는 다음 몇 달 동안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고통이 아직도 나를 감싸고 있으며 나를 무용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누구든 내가 언니에 대하여 잠깐만이라도 내가 말하게 해준다면 훨씬 마음이 진정될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고 싶어하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잃어 버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죽고 자녀가 교회를 떠나며 남편 혹은 부인이 불치의 병이나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돕고 싶어하지만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동정심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피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속 깊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런 감정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황합니다.

영은 우리가 비탄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이 오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1.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슷한 잃어 버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느낌인지 기꺼이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그런 비탄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그렇게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갖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보다 높은 시야에서 되돌아볼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 생의 여러 가지 일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대학에서 1955년 12월 6일에 행한 연설,

에드워드 더블류 김볼 편,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37페이지)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되리라는 신앙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탄에 빠져야 할 필요성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을 지니신 예수님까지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셨습니다.(요 11 : 35~36 참조)

3. 우리는 또 슬픔에는 죄의식, 즉 과거에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한 후회스러운 추억이 따른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식은 우리가 회개하게 해줄 때에만 유용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달리한 사람에게 “보상”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영원한 관계를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4.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도 무언가하십시오. 식사를 제공하십시오.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귀기울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잃은 어떤 자매는 수줍음이 많은 이웃 사람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집에 와서 밤새도록 함께 있어 주고 딸이 올 때까지 그 다음 날도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 이웃 여자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 혼자 있었더라면 정말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성약을 맺을 때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모사 18 : 8)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훈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데전 5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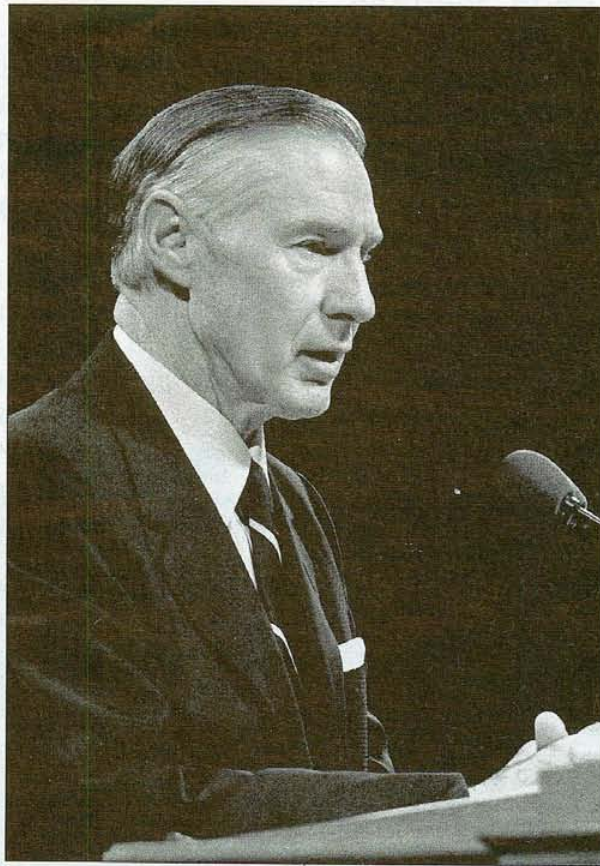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2.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도움을 구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나?
가정의 밤 자료집, 106~8, 138~45페이지를 보충 자료로 참조한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눔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1940년에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와 나는 브라질 남부의 쿠리티바 시에서 선교사 동반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프라카 자카리어스라고 하는 광장에 있는 모퉁이 식당의 다락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 장로와 내가 동반자가 된 첫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선교부 내에서 으뜸이 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풀투갈어로 일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할 때 내가 앞장 섰습니다. 그곳의 풍습에 따라 나는 여러 집을 다니며 대문 앞에서 손뼉치고 문에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방문한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나서 나는 동반자에게

이제 그의 차례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찾아 간 집 앞에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파우스트 장로가 손뼉쳤을 때 나는 그가 그 구도자와 접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는 대문 안에 들어가서 창문에 서 있는 어떤 여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테도 발레익도 가족으로서 곧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있는 현재 일만명 이상의 말일성도 가운데 맨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이 년 반 동안 평균 한 사람 정도 개종시키던 당시에 파우스트 장로는 맨 처음 접촉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감동을 주고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의 생애 자체가 그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품었던 또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품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척자 선조의 자녀로서 1920년 7월 31일 유타주 델타에서 조지 에이 파우스트와 에이미 핀린슨 파우스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경전, 특히 물몬경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어머니께서 아셨던 것만큼 물몬경에 대하여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간증을 얻은 것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간증이, 개인적인 간증이 없었던 시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성장한 파우스트 장로는 주님과 그의 교회를 믿는 것이 쉬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소짓습니다.

그의 부친은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사한 후 검사 및 지방 법원 판사로 봉사했습니다. 조지 파우스트는 검사로서 감독단으로서 바빴으나 “우리가 스포츠 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육상 경기에 출전할 때면 안오신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짐 파우스트는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격려받는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식 축구와 육상에서 대학 시절에는 육상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훈육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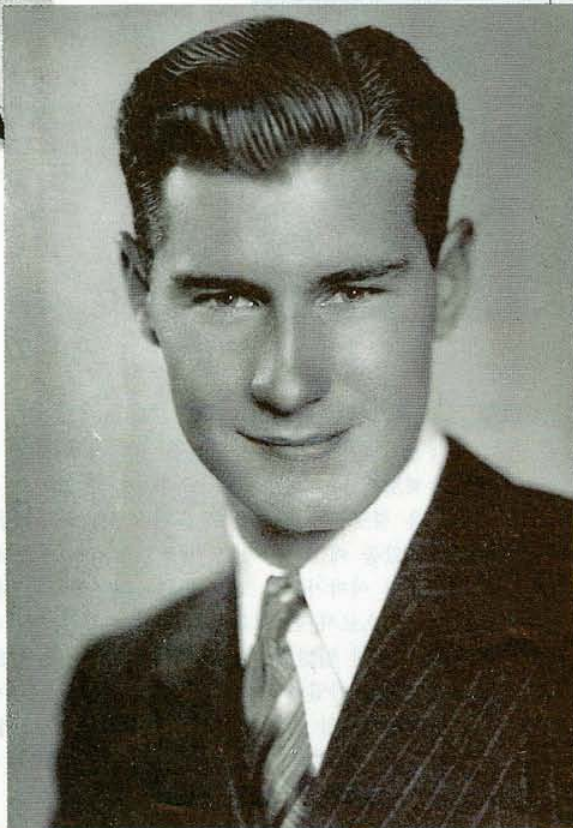
그는 다른 방법으로도 훈련받았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열심히 일할 것과 짐 주변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소는 매일, 심지어는 성탄절, 일요일, 생일에도 젖을 짜 주어야 했습니다. 또 닭모이도 주어야 했습니다.”

짐 파우스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년 동안 유타 대학을 다닌 후 1939년 브라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선교사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파우스트 장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빼고는 별로

많이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소중한 시간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의 선교사 시절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폴투갈 언어를 능통하게 했으며 독일어로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한 어린 소년 시절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40년 브라질에서 봉사하던 선교사 시절, 1939년 봄 유타 대학의 육상 팀의 일원이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생명 그 자체를
초월합니다. 간증이 믿음 이상의 것이 되어 자신의
확실한 지식의 한 부분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당시 브라질에 있는 교회 회원 대부분이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그는 지방부장으로 지역 성도들을 감리했으며 또 선교사 사이에서 여러 지도자 직책에 부름을 받아 일했습니다.

파우스트 장로는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거의 삼십 오 년이 지난 1975년에 남미에서의 교회 사업을 감리하기 위하여 십이사도 보조로서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개종자 침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두번째 선교 사업은 물론 훨씬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곳에서 봉사할 기회를 한번 더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 백성과 나라들을 주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찬탄과 개인적인 만족을 자아내는 큰 원천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 봉사로부터 군복무로

이 21세의 선교사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의 조국은 세계 대전에 휘말려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브라질을 떠나는 것이 몇 달 지연되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짐과 루스는 장교 훈련 학교에서 열흘간 휴가를 받은 그 기간 동안에 결혼했다. 파우스트 부부가 결혼 초기에 낚시에서 잡은 고기들을 자랑하고 있다.



지 육 주일 후에 그는 영장을 받고 공군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는 귀환 선교사로서 경험에 있어서나 언어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나 실질 교육에 있어서나 또 지휘 능력에 있어서 보통 군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장교 훈련 시험에 합격했으며 정보과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다른 장교들—야망과 확고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하게 됨에 따라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호적인 태도와 참을성과 이해 등과 같은 타고난 자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등 학교에서 알았던 루스 라이트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장교 훈련 학교로부터 열흘간 휴가를 얻은 기간에 그들은 1943년 4월 21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함께 그의 공군 배속 부대까지 여행하며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가 근무한 군부대에서 그들만이 차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교회 회원일 때가 많이 있었으며 그럴 때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 이후 짐은 해외에 배치받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이집트 등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군함 내에서 유일한 말일성도로서 매주 일요일에는 혼자 예배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큰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십일조를 내고 가능한 한 안식일을 기억하려고 애쓰면 영이 와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부장 시절의 파우스트 장로 1974년 당시 파우스트 가족.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활동에 가족을 맨 먼저 고려합니다.”라고 파우스트 장로는 말한다.



정상적인 생활을 이룸?

짐은 삼 년간 군복무를 마친 후 자신이 대학에 복학함으로써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미루고 싶든지 어떤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대학을 떠난 지 벌써 육 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친의 격려에 힘입어 대학으로 돌아가 1948년에 유타 대학으로부터 법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는 그 이후로 이십 사 년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법조계에 몸담았으며 그의 전문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직업에서 큰 만족을 많이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모두 법조인이 되어 있는 세 아들에게 만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이때까지 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법조계에서 일하고 그렇게 큰 보람을 얻었을까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면서 보람을 얻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개인적인 관심이 그의 의뢰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마커스에 의하면 “그는 사람이 물건이나 사물보다 더 중요하며 우리 자신의 법률 업무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생활이 변하는 것을 볼 기회”

감독(28세 때), 솔트레이크 카튼우드 스테이크 부장(35세), 지역 대표를 포함하여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기간을 돌이켜 보면 훌륭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름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훌륭한 부름입니다. 생활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시련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모든 일을 다시 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보고서와 서류 정리와 모임에 대하여서는 신경을 덜 쓰고 과거보다 더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하겠습니다.”

그 동안 선교사로 일할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직업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교회 부름을 행하면서 짐 파우스트와 루스 파우스트는 지속적인 우정을 쌓았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런 성공의 많은 부분이 아내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내는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대단히 따뜻하고 외향적입니다. 아내는 간과하면 안될 것을 내가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루스 파우스트는 행복과 의로운 모범과 정서적인 안정과 여러 가지 영원한 원리에 대한 헌신의 생생한 모범입니다. 여성들이 자아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곧잘 그녀를 쳐다보곤 합니다. 루스는 이기심이 없는 그리스도같은 여성으로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누가 파우스트 장로에게 부인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회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루스는 너무나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녀도 이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 슬하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단상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노력해 왔으며 주님이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내의 생활에서 역사하시고 그녀의 생활에서 또 그녀가 말씀할 때 전하는 메시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녀가 얼마나 영에게 자신을 맡기는가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늘 가족과 가까이 함

파우스트 일가가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남미 지역 책임자로 봉사한 브라질에서 그의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 루스는 폴투갈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루스는 사랑을 통하여 또한 명랑한 성품에서 발산되는 빛을 통하여 대화했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그의 후임으로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그들이 그곳

사람들에게서 마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 부부는 신혼 시절에 사 년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도와 금식과 걱정과 신권 축복이 있는 후 첫 아기를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십 년 동안 다섯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혼했으며 파우스트 장로 부부에게는 열여덟 손자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이 있더라도 제임즈 파우스트 장로는 가족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으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에 있는 것에 치중해 왔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와 손자들의 생활에 참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우선 순위였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세탁한 옷을 접거나 정원에서 일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밤에 아빠의 무릎에 앉거나 잠자리에 누워서 부모가 이불을 꼭꼭 여미어 줄 때 등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짐과 루스의 노력은 큰 유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 자매도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활동에 가족을 맨 먼저 고려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는 1978년 10월 1일 이후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여성인 그의 아내 루스가 그의 부름을 지지해 주었다.

신성한 가족 경험

딸 리사에게는 심장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관련된 신성한 가족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의 좌우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었으며 의사는 그 구멍을 작게 만들기 위하여 곧 개복 심장 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만 두 살쯤 되었을 때 의사들은 그 구멍이 폐에 너무나 압력을 많이 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 수술해야 하리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빠와 남편과 시아버님이 나란히 손을 얹고 아빠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아기를 검진하고는 그 구멍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기 때문에 개복 수술이 필요없으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권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와서는 그 아이가 너무 활발해져서 좀 얹진해졌으면 하고 리사가 바라게 되면, “아빠는 그 아이의 건강이 큰 축복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파우스트 장로는 처음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자녀를 모아 놓고 특별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 개개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그 각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파우스트 자매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만일 자신이 먼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훌륭한 총관리 역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아버지라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부름이며 가장 중요한 부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그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지지합니다. 아빠는 대단히 배려깊은 사람이며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전에는 너무나 많이 있음”

파우스트 장로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반 시간 동안 산책함으로써 일과를 시작하며 보통 파우스트 자매와 동행합니다. 콘도미니엄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언제나 최소한 하나 정도의 소채원을 갖고 있었고 꽃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는 지금도 “흙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좋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수집해 놓은 레코드를 자주 듣습니다. 그는 선교사 사중창단에서 바리톤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기 의자—“할아버지 걸상”—에 앉아서 경전 읽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할 때 손자들이 그의 무릎에 기어올라와서 잠들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는 “경전에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우리가 경전의 걸만 스치고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1972년 10월 6일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10월 1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 되었으며 2년 후인 1978년 10월 1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성임받았습니다.

파우스트 장로는 국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세상 곳곳의 회원 및 비회원과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십이사도로서 첫 대회 말씀을 할 때 그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큰 사랑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분 색맹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선교사로, 군인으로, 총관리 역원으로 다닌 나라의 사람들을 인종과 피부에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특히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며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분들과 같은 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얻는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30페이지)

개인적인 관심의 모범

그는 어떤 부름을 받을 때나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모범으로 보여 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람들과 친분을 맺은 경험을 통하여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랑과 개인적인 관심을 느끼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재능을 타고 났습니다. 그는 어떤 스테이크나 나라를 방문하고 나면 그곳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감동적이고 힘있는 간증을 합니다. 그는 구 년 전 정원회의 가장 새로운 회원으로서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자신을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름에 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도직에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구속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것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 나에게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권능으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29페이지)

정말로 그는 봉사할 자질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십이사도 평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구세주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는 것은 따뜻한 영적 경험이며 확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의 중요성을 너무나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름에 적합하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회 훌륭한 형제애와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생명 그 자체를 초월합니다. 간증이 믿음 이상의 것이 되어 자신의 확실한 지식의 한 부분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훌륭한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바다와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의 예술

예 술은 언제나 이야기를 전하는 훌륭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또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언제나 예술이 맡고 있는 역할이기도 했다.

기념할 만한 신앙의 이야기가 태평양의 여러 섬 특히 통가, 사모아, 피지에는 많이 있다.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는 화가이며 통가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사람이다. 그는 지금 부인과 다섯 자녀와 함께 와이오밍주의 스타벨리에 살고 있다. 여기 나오는 다섯 점의 그림은 통가, 사모아, 피지에서의 선교 사업의 시작과 진행의 이야기를 전해 준다. 오늘날 이 군도에는 140개 이상의 와드와 22개 이상의 스테이크와 두 개의 성전이 있으며 교회 회원은 약 10만 명이 된다.



1.

1.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1862년 12월에 하와이 원주민 선교사인 키모 벨리오 장로와 사무엘라 마노아 장로는 선교사로서 고향을 떠나 사모아로 갔다. 벨리오 장로는 병이 났으며

나중에 죽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다가 1888년 이 그림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조셉 에이치 딘 장로와 그의 부인 플로렌스가 안누우로 배를 타고 가서 그 해의 6월 21일에 도착했다. 딘 부부가

도착함에 따라 마노아의 선교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딘 장로가 생후 4개월이 된 아들 제서 헨리를 안고 있고 딘 자매는 마노아 장로와 결혼한 원주민 자매의 도움을 받아 해변을



복음 그물



2.

통역사가 통가어로 번역한 신앙개조를 한 부 드렸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들은 후 그 안에 담긴 기독교 교리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원하는 대로 어떤 교회에 가입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장로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조지는 왕이지만 간단한 복장을 하고 있다. 그의 허리를 감고 있는 것은 투페누이다. 이 전통적인 의상 위에는 타오발라라고 하는 직물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존경의 표시로써 허리 위에 코코넛 섬유로 만든 끈을 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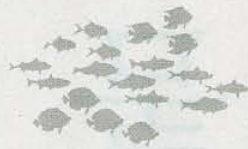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이 도착에 대하여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햇볕이 구름 너머로 바다를 비치는 가운데 두 명의 젊은 사모아인이 그들의 트렁크를 해변으로 운반하고 있다.

2. “통가 왕을 만남”

회복된 복음이 사모아로 들어온 지 삼 년이 지났을 때 선교사들이 사모아로부터 통가로 복음을 가르치러 갔다. 그들이 1891년 7월

16일에 처음 내린 것은 왕 조지 1세(시아오시 투포우 1세)를 만나서 그의 백성 사이에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허락받기 위해서였다. 이 작품 내에서 브리감 스무트 장로와 엘바 존 버틀러 장로(악수하는 사람)는 왕을 만나기 위하여 통역사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3. “사람을 낚는 어부”

현대의 통가 원주민 장로들이 뒤에 있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와서 새로운 선교 지역에 도착하고 있다. 이 장로들은 맨발에 그들의 전통적인 투페누와 타오발라를 걸치고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맸으며 어깨에는 깔고 잠도 자고 깔고 앉기도 하는 팔라를 매고 있다. 그들은 의복과 침구를 포함하여 모든 소유물을 이 매트에 말아서 어디로 가든지 이것을 갖고 다닌다. 그들의 바구니에는 경전과 소책자가 들어 있다.

4. “장로와 부자”

이 그림에 있는 젊은이는 현재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가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이 땅에서 젊은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는 수평선 위의 배와 관련이 있다.

그 배의 주인은 이전에 이 섬에 와서 원주민의 순진함을 이용했던 부유하고 세상적인 외국인이었다. 이 선교사는 한 나이 많은 원주민을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훌륭한



3.

교훈을 한 가지 배우고 있다. 이 선교사는 그 세상적인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많은 형제가 그의 말을 받아서 “예, 저도 저

불쌍한 사람이 안됐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가난은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물질적인 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진정한 부를 그 섬의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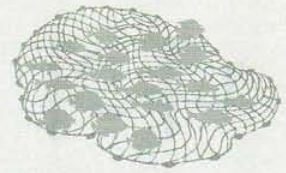
5. “선교사인 화가의 자화상”

이 화가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봉사한 피지섬에서 한 마을 가족을

음뚝



조영훈



4.



5.

가르치고 있는 자신과 동반자(서인도 제도 주민)의 모습을 그렸다. 이 마을의 작은 오두막 집은 가구도 없으며 보통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늘 그렇듯이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호롱불에 의지하여 농부와 어부를 가르쳤다. □

나의 흑인 조상을 찾음

캐롤 배티가 브래드 윌콕스에게 이야기한 내용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직후 축복사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문에서 계보 사업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나는 흑인으로서 언제나 계보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우리 조상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노예는 언제나 이름없는 재산으로써 기록되어 있었을 따름인데.

그러나 비록 나에게서 상세한 계보 조사를 할 수 있는 경험과 시간과 돈이 없었지만 나의 개인적인 뿌리를 찾고 또 성전 사업이 행하여지게 하라고 권고하는 축복사 축복을 분명히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계보 사업을 시작했다.

수 개월 동안 실망에 찬 계보 탐구를 한 후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우리 방 거실에 걸려 있는 고조 할머니의 사진이 내려져 내 손에 전해졌다. 나는 그때 이미 그 할머니의 기록을 찾는 일을 했으나 헛되이 끝난 후였다. 그러나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사진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꿈에 왜 그것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여러 번 그 사진 앞으로 돌아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시시피 기록 보관소에 조회하는 편지를 써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으나 어쨌든 그 느낌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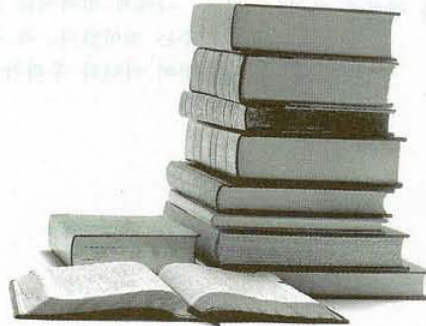
일주일 후 특별한 인구 조사서를 한 부 받았는데 그것은 고조 할머니의 출생을 입증해 주었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아틀란타 성전에서 고조 할머니를 위한 구원 의식을 행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나는 그 이전에도 거실에서 그 사진을 가끔 쳐다보곤 했으며 그때는 단지 고조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따름이다. 지금은 그 사진은 내가 조상에 대한 사항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나에게 한 가지 길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



똑같은 시간

린시 알 커티스



“한 때는 종교를 믿었지만 그것은 과학을 공부하기 전의 일이었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아.”라고 의과 대학 급우가 말했다.

나는 “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과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경전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니?”라고 물었다.

그는 “소년 시절 이래로 본 적이 없어.”라고 말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인물이 성전 봉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식량이 전혀 생산되지 않을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일 년, 이 년, 혹은 삼 년 치 식량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리 대관장님께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리 대관장은 “4월 연차 대회에 참석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아닙니다.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들이 말씀하신 대회 보고는 들림없이 읽으셨죠?”

“아닙니다.”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대회에서 주님이 식량 비축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형제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읽으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해롤드 비 리, “살아 계신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위치”, 1964년 7월 8일,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신학 연구원 임원에게 행한 연설)

신앙의 씨앗을 가꿈

간증은 살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물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고 햇빛 속에 방치하고도 살아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의 교회 모임은 신선한 물과 햇빛을 공급해 주며 신앙의 씨앗을 가꾸어 주고 또 자라서 더 튼튼해지도록 복돋아 준다. 경전도 역시 매일 영양을 주는 원천이 된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명한 권고를 해주셨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물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얻고 그리하여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몬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간증이 살아 있게 하기 위하여 물몬경을 읽고 또 다시 읽는 것도 그 못지 않게 필요하다.

우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물몬경을 읽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4)고 한 약속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간증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주님이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열심히 상고해야 한다.

예언자의 지혜에 탄복함

내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지 한두 달밖에 안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며 유명한 의과 대학 교수인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 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부장님, 당신의 교회에 가입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훌륭한 의사가 되면서도 여전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전문 직업과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 사이에 한번도 갈등이 생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박사님은 그런 과학적인 배경을 지니신 분이어서 어떻게 해서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전혀 믿을 수 없게 생각되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만일 이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였다면 그의 업적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쓴 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해서 읽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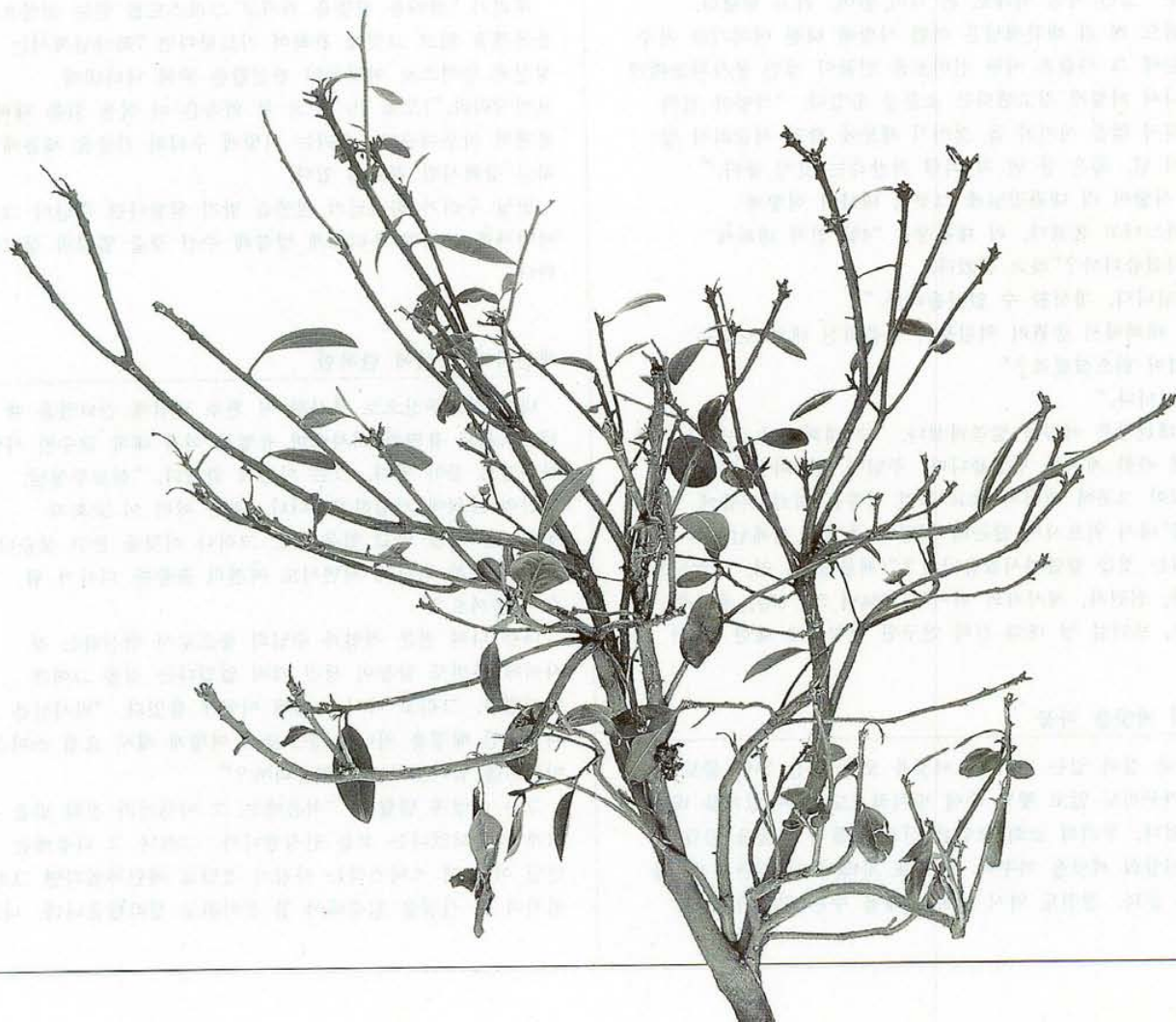
“나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젊은이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발휘한 그 지혜에 탄복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주장한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지혜로운 것을 하나도 쓰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가정 교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첫번째 질문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그 다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물론경을 읽고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사실 그대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론경을 읽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모로나이서 10:4 참조) 요셉 스미스가 설명한 것보다 더 나은 설명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경전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받고 있음

나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답은 한 가지 개념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었다. 즉 물론경과 기타 다른 경전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경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는 경전에 내재되어 있다.
경전의 참됨에 대한 간증은 단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

매월 성도의 벗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와 다른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현시대에 필요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받고 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과 뜻을 지니고
계신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도의 벗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 정책에 대하여 주님이 계시하신 것은
귀찮아서 안보면서 교회 정책에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본질

그대로 알려고 한다면 영을 통하여 우리의 총관리 역원이
권고해 주는 것을 연구하고 귀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전을 읽었을 것이며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감각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똑같은 시간”을 주님에게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경전을 읽는 습관을 쌓는 가운데 자신의
생활에서 이 성신의 권세를 자주 느끼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데이비드 퀴니 이세 촬영

고난의 교훈



산드라 에프 스트렌지

열

집의 글레나는 정말 우아하고 품위를 갖춘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약속으로 충만한듯 보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여섯 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으며 신앙도 깊었다. 그러나 글레나는 암으로 죽어 가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할머니는 옛날과 너무나 변해 있었다. 관절염이 악화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왔다. 동맥경화증과 수많은 작은 마비 증세로 지적이고 다정했던 품성이 짜증스럽고 까다롭게 변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상실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시간 관념을 상실한 채 몽롱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 쉽사리 정신이 나갔으며 죽은 남편이나 그 동안 살아 온 것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

타고난 수명을 너무나 빨리 빼앗긴 글레나와 정신보다 육신이 더 오래 산 할머니는 몇 달 차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몇 년 전 그들이 죽은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이 오겠



동안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그리고 비록 왜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앙과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

그중 한 사람은 팔십 세의 비다 세퍼드였다. 백혈병으로 그녀의 뼈는 극도로 경직되어 자칫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원에 가만히 있어야 했으므로 늘 등이 쭈시고 아팠으며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심장병으로 몸이 불편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눈을 돌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했다. 가능할 때에는 요양실에서 원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 마비 증세가 와서 말을 못하게 된 어떤 여성과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낸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그녀가 알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을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세퍼드 자매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으로 인하여 더 심한 시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숨을 거두기 몇 년 전에 심한 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그런 마비 증세로 인하여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 좀 난폭하고 반감이 나게 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으나 세퍼드 자매는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로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집에서 남편을 간호했다. 그 이후에도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소까지 먼 길을 가서 남편의 식사 시중을 들고 간호해 주었다. 이 자매는 인생의 특별한 시련과 시험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주려고 하는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꺼이 주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서적 및 물질적 자원을 얼마나 희생할 용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나는 시누이인 주디를 자주 생각한다. 그녀의 열한 살된 딸인 스테파니는 심한 뇌성마비를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 그 딸은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 것도 없었으며 의사 표시도 못하고 의미없는 소리를 낼 따름이었다. 주디가 딸을 먹일 때는 음식을 한 숟가락씩 참을성 있게 입에 떠 넣어야 한다. 스테파니는 잘 삼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숟가락으로 다시 떠 넣어 주어야 한다. 주디는 끊임없이 또 사랑에 가득 차서 스테파니를 돌보아 준다.

스테파니의 곤경을 통하여 주디의 선한 성품이 많이 표출되었다. 아마 주디 자신도 자신에게 있는지 몰랐을 그런 깊은 인내심과 자기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우리 자신의 장점과 또 약점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이웃의 글레나가 죽어 가고 있을 때 나는 그녀를 방문해서 함께 해주기를 꺼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옆에 있으면 어색했다. 그녀가 죽은 후 나의 태도를 분석해 보고 그렇게 불편하게 느꼈던 것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나 자신의 생명의 유한성을 바로 보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우선 순위가 갑자기 바뀔

아마 우리의 가장 참된 봉사는 보상을 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봉사할 때 나타날 것이다. 옛날에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인 매리 자매는 고통스러운 암에 걸려 있었다. 와드의 새로운 회원인 돌로레스는 암으로 아들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 자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매일 매리 자매를 방문하여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돌봐 주고 그런 특별한 죽음의 그림자를 직면한 적이 없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이야기했다.

매리 자매의 고통은 다섯 자녀의 젊은 어머니인 낸시 자매도 변화시켰다. 낸시 자매는 막내 아들이 출생한 이후로 그녀를 괴롭힌 질병과 가족 문제 때문에 우울과 분노와 자기 연민의 폐쇄된 생활로 빠져든 적이 있었다. 낸시 자매는 자기가 우울한 시절에 늘 도와 주려고 애썼던 매리 자매를 사랑했다. 낸시는 그 사랑을 품고 자주 매리를 방문했으며 매리가 점점 더 무력해지자 낸시는 매리의 흠이불을 갈아 주고 목욕할 때 도와 주는 그런 달갑지 않은 일을 떠맡았다. 매리가 죽은 후에도 낸시는 계속해서 그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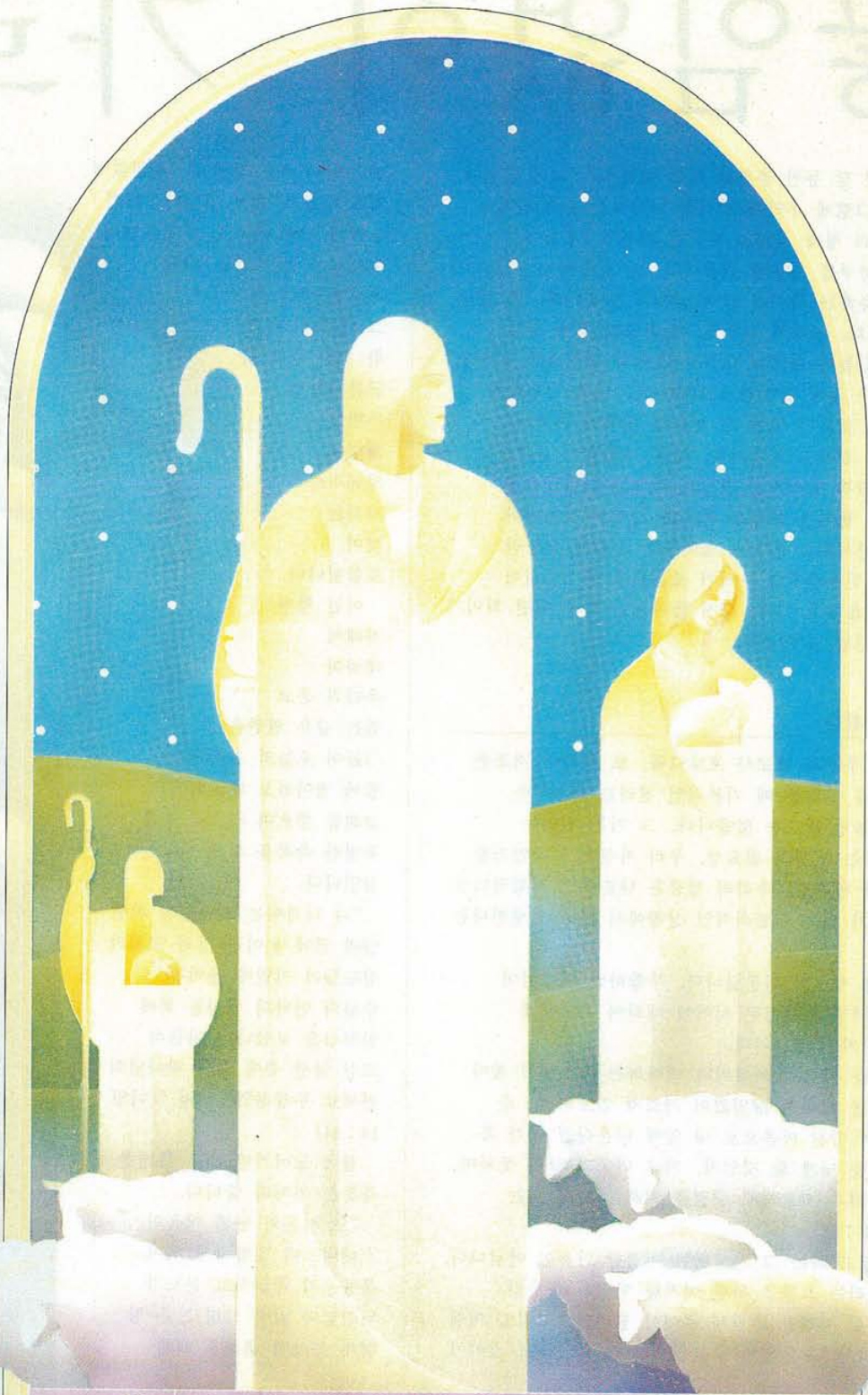
아마 매리의 고난과 고통은 낸시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매리, 비다 및 그런 사람들을 방문함으로써 내 자신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과 짜증스러운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친구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인생에서의 우선 순위가 갑자기 달라진다. 석양의 신비로운 색깔, 세 살된 딸의 웃음소리, 성전의 포근한 화평, 매순간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충실하면서도 계속해서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은 내가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사랑이나 의무 때문에 그런 고통을 지켜 보아야 할 때 우리는 그런 불공평하게 보이고 아무 잘못 없이 무서운 고통을 겪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인하여 낭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키워 주고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평가하게 한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운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이 다시 의미를 지니게 되고 보람이 있는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반가운 친구로서 올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준다. □

그런 고통을 지켜 보아야 할 때 우리는 그런 불공평하게 보이고 아무 잘못 없이 무서운 고통을 겪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인하여 낭패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런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키워 주고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





진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양떼를 돌볼 목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목자가 되고 지도자 자매가 될 사람들이 많이

“꿈임없이 가르쳐

최

근 몇 달 동안 총관리 역원 형제들이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에 우리가 완전히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일컫기 위하여 “활동이 저조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문구에는 비판하는 의미가 적고 권유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좀더 정확하기도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훌륭한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호의와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하여 기꺼이 이야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상황을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완전하게 활동적인 상태로 돌아올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는 돌아오기 위하여 한동안 준비를 갖춘 후 인봉실에서 우리가 포옹했을 때 “드디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음

교회의 청남, 우리의 선교사 프로그램, 또 활동이 저조한 우리 형제 자매를 살펴볼 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로 인하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본 원리는 보살피고 신뢰하는 관계의 필요성,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인식함, 우리의 성공은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사랑에 찬 대화가 있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현실입니다.

나에게는 다음 성구가 기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적인 책임과 한정된 시야에 대하여 우리에게 솔직하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들을 너희의 회당이나 예배하는 처소에서 쫓아 내지 말고 저들을 위하여 꿈임없이 가르쳐 인도하라. 혹 저들이 회개하여 참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혹 저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것인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니삼 18:32)

“쫓아 내지 말고”라는 그 자체로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고 우리 사이에 그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꿈임없이 가르쳐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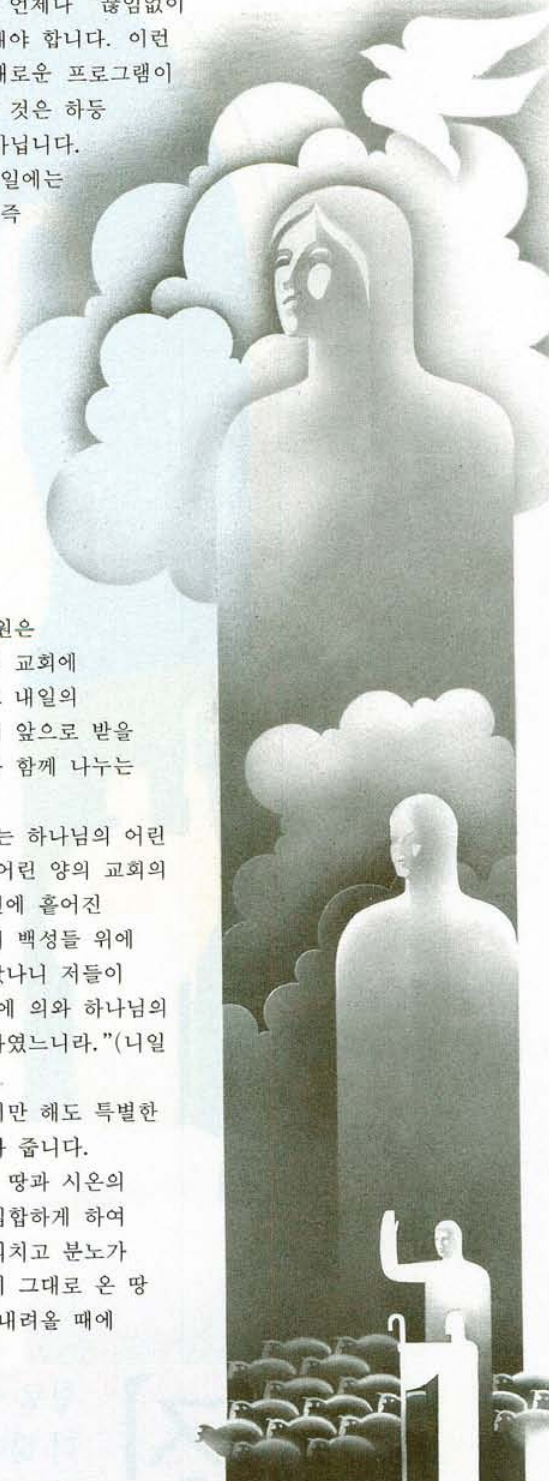
그 대신에 이 일에는 한 가지 원리 즉 근본적으로 두번째 큰 계명을 정구적으로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형제 자매에 대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깊은 염원은 그들이 오늘의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내일의 교회를 쌓으며 앞으로 받을 특별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세가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지면에 흩어진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에 임하심을 보았나니 저들이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였느니라.”(니일 14:14)

함께 모이기만 해도 특별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시온의 땅과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게 하여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우리는 교회 전체 회원의 약 13.5퍼센트 회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교성 115:6)

군중 속에서의 고독

또 한편 이 친구들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앞에 두고도 배고플 수 있으며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고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은 특별히 다시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크 부장은 이 과제에 대하여 말만 하는 것에 싫증이 나서 말만 하기보다는 실천하기 위해서 고등 평의회 모임을 휴회하고 대체사 그룹 지도자와 함께 활동이 저조한 어떤 형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서 나올 무렵에는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한 가지 부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미루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소 불명의 회원 가운데 개종 과정이나 우정 증진 과정에서 실제로는 그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이 훌륭한 형제 자매들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 전체 회원의 약 13.5퍼센트 회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고 활동적인 우리의 남자 어른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개종 침례에 남자 어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불과 30퍼센트밖에 안됩니다. 그 작은 부분 가운데서도 75퍼센트 되는 사람이 끝까지 멜기세덱 신권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써 개종한 청년은 대부분이 끝까지 멜기세덱 신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목자가 필요함

그 결과 교회 일부 지역에서는 마치 오토바이를 끌 힘밖에 없는 엔진으로 대형 승용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같이 됩니다. 만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남자 어른 회원의 50퍼센트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또 활동적이라면 교회가



사람의 세계가 바뀌는 순간보다 무조건으로 받아들여 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깊이 느낄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진실로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양떼를 돌볼 목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목자가 되고 지도자 자매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 시간

우리는 현재 교회가 안주하고 있는 수준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너무 늦기 전에 손을 위로 뻗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웃이 되고 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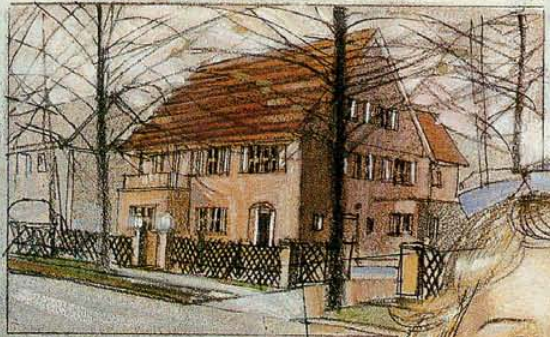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이 간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가 모두 배척받게 되리라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사망, 이혼, 직업 전환, 질병, 이사 등과 같이 사람의 세계가 어떤 면에서든 바뀌는 순간보다 무조건으로 받아들여 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깊이 느낄 때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엘마의 말을 인용하면 “말을 들을 만큼 준비가 되어”(엘마서 32:6)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인도하라. 혹 저들이 회개하여...내 앞에 나온다면...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니삼 18: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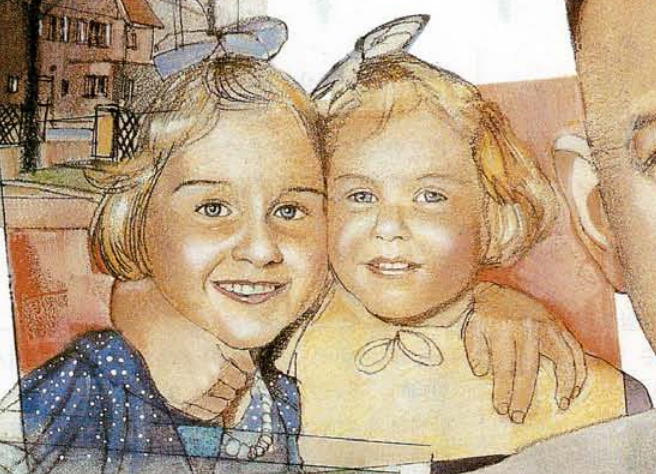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의 성역을 완전히 끝내신 다음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할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지도 방식과 내용을 반영하는 이런 권고를 주고 계시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또 올바른 순서는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지지하고 가르치는 환경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완성한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주님은 “저들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우리가 “저들을 구원으로 데려오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인도와 위안으로 가득 차 있는 훌륭한 성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아는 우리의 말씀에 의하여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성 46:13~14 참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할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역할을 맡기 합당하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



동독 선교본부

스토버 부부가 두 독일 소녀인 하이디와 브리지테를 입양했다. 스토버 부장은 자비를 들여 네 개의 예배당과 선교본부를 지었다.



스토버 선교부장과 선교사들 베를린에서의 복지 사업을 위해 감자를 심고 있는 모습



베를린 다렌 예배당



매 일 아침 독일 브레메르하벤에서 월터 스토버가 학교까지 먼 길을 걸을 때 자갈길과 석조 바닥으로 된 길에 그의 나막신이 부딪치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나막신을 신은 것은 한 켈레에 150원밖에 하지 않았으며 돈이 귀한 때문이었다.

어린 월터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지금 87세의 월터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부친은 마지막 삼 년 동안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농사 일을 도와 드려야 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는 열네 살 때 철공소의 견습공으로 일했다. 열 여섯 살 때에 독일 육군에 입대해서 제일차 세계 대전 기간에 불란서와 벨기에 전장에서 포병으로 싸웠다.

천사, 책, 약속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가구와 침구 사업을 시작했으며 마르다 보넨스텔겔과 결혼했다. 그후 1923년에 두 젊은이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웨인 카트세너 장로와 오토 안드레 장로였다. 그들은 서투른 독일어로 요셉이라는 소년과 천사와 어떤 책과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월터와 마르다는 어느 추운 십일 월 한밤중에 바르테 강에서 침례받았다. 밤에 의식을 집행해야 했던 것은 당시 독일에서는 몰몬에 대한 적대 감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다. 월터는 랜스베르그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다. 서른 명의 회원이 그의 침구 공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는 마르다와 함께 시온에 집결하라는 요청에 응하여 1926년에 유타주로 이주했다. 마르다는 일주일에 7불 50센트를 받고 남자용 와이샤쓰를 꿰매는 직장에 다녔으며 월터는 일주일에 20불 받고 침구 제조 공장에서 일했다. 1929년에 그들은 스토버 침구 회사를 설립했다.

후하게 줌

윌터 스토버—관대함에 관한 전설적인 인물

멜빈 레비트

사업이 커짐에 따라 윌터는 그의 관대함과 사랑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세상적인 재물과 자기 자신을 후하게 바쳤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남에게 이야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돌봐 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을 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밝아졌다.

것도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 1946년 탈경이 되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 되어 있었다. 북쪽 지방에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상 최악의 추운 겨울 가운데 하나를 겪게 되었다. 충실한 성도들은 난방이 되지 않은 건물 안에서 모임을 가지며 성찬컵에 있는 물이 얼어 붙는 것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

전쟁의 먹구름

그러나 윌터 자신의 생애도 유럽 전체를 휩쓴 전쟁의 먹구름에 의하여 어두워졌다. 곧 그의 조국과 그가 이만한 국가가 그가 젊었을 때 싸웠던 바로 그 전투장에서 서로 상대편 아들들을 죽이고 있었다. 이차 대전의 총성이 마침내 멎게 되었을 때 독일은 배고픔과 질병과 절망의 우울한 세계를 보게 되었다. 독일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수백만의 사람이 집을 잃었다. 식량, 의복, 연료, 거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서

독일로 돌아감

십이사도 평화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1946년 초에 필요 사항을 알아내고 또 교회의 여러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기부한 수백 톤의 구호 물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하여 구라파로 왔다. 그 해 가을에 이제 그 필요 사항이 보다 더 절박해지고 있는 순간에 이 구호 물자가 독일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지 물자가 도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독일에 또 다른 큰 선물 즉 신앙과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냈다. 그는 나막신을 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커졌지만 자기가 태어난 땅에 대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은 겸손한 윌터 스토버가 독일 선교부장으로 파송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돈으로 기차 화차 두 차량에 음식과 구호 물자를 사서 가득 싣고 서독으로 가져 갔다. 또 자기 소유의 녹색 폰티악 자동차를 가져 갔다.

스토버 선교부장은 벤슨 장로가 감리하는 모임에서 선교부장으로 지지받았다. 그 모임은 베를린에서 폭격을 받은 한 학교에서 열렸다. 교회 회원들이 그 모임이 끝난 후 스토버 선교부장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비, 농장 및 모든 소유물을 잃었지만 복음에 대한 간증은 결코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소련 관할 구역으로

동독 선교부의 여덟 개 지방부는 소련 관할 구역 내에



매일 죽어 가고 있었다.

충실한 말일성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폭격에 죽었다.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 전쟁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마지막 기간 동안 또 전쟁이 끝난 후의 그 참혹한 상태 속에서도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들은 서로 음식과 집과 신앙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동포인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함께 나눌 것도 없고 또 이상 살 수 있는

있었다. 스토버 선교부장은 이 구역에서 몇몇 지방부 대회를 시작해서 남아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했다. 수많은 지부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다. 어떤 지부는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남자들은 죽거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 사람들은 기올빵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초근 목피를 뜯어 먹고 있었다. 회원들은 식량이 부족한 것 못지 않게 영적인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대회에 몰려 들었다. 스토버 선교부장이 자신의 녹색 폰티악을 타고 소련 구역 내로 넘어가서 영적인 원조와 물질적인 원조 물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이 흠어지고 굶주린 양떼를 돌보는 목자 역할을 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러한 여행에는 몇 가지 위험한 점도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체포되었으며 한번은 총구 앞에서 미국 간첩의 혐의로 소련 군사 재판소에 끌려 가서 재판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무사히 석방되었다. 그는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으로부터 그가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동안 원수가 그를 이길 권세를 갖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은 여러 번 지켜졌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교회 복지 물자와 자기 자신이 구입한 물자로 항상 성도들을 먹이고 입혔다. 그는 자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가족들에게 의복과 담요와 구호 물자를 갖다 주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교회 전역의 회원들도 역시 독일 성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부했다. 스토버 선교부장은 이런 노력을 “내가 교회 회원이 된 이래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일이었습니니다.”라고 회고한다. 그것은 그가 독일 성도들의 고난을 상세하게 설명한 네델란드 방문에서 시작되었다. 네델란드 선교부장이인 코넬리우스 제피 선교부장은 크게 감동을 받아 네델란드 성도들에게 옛날의 적을 위해서 그들의 정원에 감자씨를 심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단한 반응을 보여 1947년 11월에 60톤의 감자를 독일로 보냈다. 또 청어도 96상자를 보냈다. 그들은 1949년에 다시 60톤의 감자를 보냈다.

성도들에 대한 스토버 선교부장 자신의 관대함도 전설적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적어도 네 개의 예배당을 짓고 기금을 대주었다. 한번은 동독에 사는 회원들을 미국이 점령한 베를린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에 데려 오기 위해서 기차를 전세낸 적도 있었다. 한번은 성탄절에 서독 선교부장과 함께 독일에 사는 모든 말일성도 어린이를 위하여 미국 부대 매점에서 초콜렛을 샀다. 그 이후로 그 어린이들은 그를 “초콜렛 아저씨”라고 불렀다.

스토버 선교부장 부부는 선교 사업이 끝날 때 두 명의 독일 소녀 하이디와 브리기트를 양녀로 데려 갔다.

스토버 선교부장은 냉전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독일을 가로질러서 철의 장막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동독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방문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지지치 않고 일했다.

스토버 형제는 1951년에 해임되어 솔트레이크로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소유물로 남에게 베푸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가난한 이민을 그의 사업체에 많이 고용했고 수많은 다른 사람을 조용하게 남에게 알리지 않고 도와 주었으며 항상 남에게 베풀었다. 브리감 영 대학의 어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그의 관대함의 작은 일부분을 누리고 있다. 그 기숙사에서 쓰는 침구와 침대 스프링은 그가 모두 기증한 것이다.

한편 그 이외에도 자신의 소속 와드와 교회 본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부름을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봉사를 위하여 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쓸 몰랐으며 어디에서나 봉사할 기회를 찾아 냈다. 예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그에 대하여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윌터 스토버 형제를 지난 사십 년간 알고 사랑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는 가식이 없는 사람이며 모범적인 말일성도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한다. “윌터 스토버는 조용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한 자기 자신의 행위를 떠벌이거나 자랑하는 법없이 주님처럼 조용하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부해 왔습니다.”

윌터 스토버는 전 생애를 시온을 세우고 그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일에 바쳐 왔다. 그는 세상적인 부에 있어서 지금쯤은 대단한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부동산과 대저택과 수많은 자동차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돈과 자기 자신을 이웃의 생애를



위하여 또 회복된 복음을 위하여 투자했다. 그리고 또 돈으로 굉장한 부자가 되는 대신에 이제 사랑과 기쁨과 주님의 영에 있어서 대단한 부자가 되어 있다.

주님께서서는 틀림없이 월터 스토버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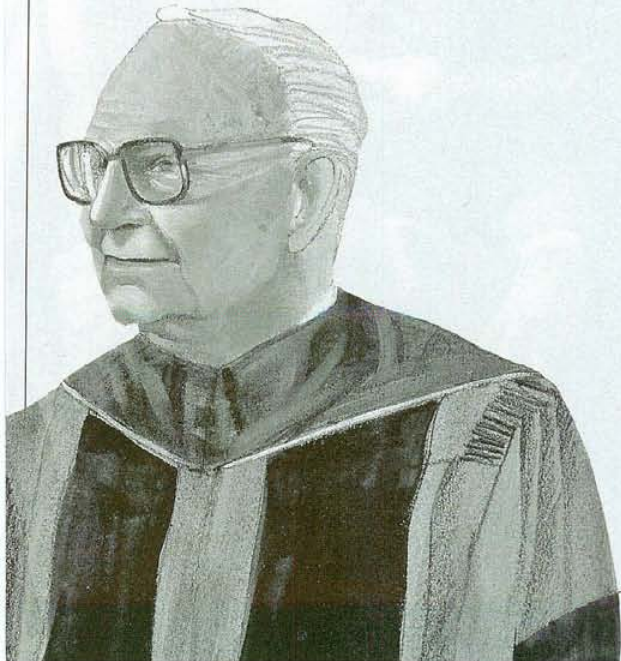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배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 : 34~40)□

브리감 영 대학 총장상을 받은 스토버 형제는 많은 가치있는 대의를 위해 많은 기부를 했다.



할머니의 축복

커크 에프 헤이즌



할머니는 죽어 가고 있었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암과 당뇨병과 중풍에 걸려 있었던 할머니는 기껏해야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의 아내인 로잔느는 내가 병원에 있는 그녀의 할머니를 방문하여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과 영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설명해 주도록 내게 부탁했다.

과거에 할머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시도하면 모두 거부하셨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어떤 기적적인 개종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나의 희망은 단지 할머니에게 약간 위안을 드리고 다음 세상에 도달할 때 복음 메시지에 대하여 마음을 열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었다. 할머니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며 그 대부분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생애에 대하여 또 할머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신권과 병자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내가 신권과 병자 축복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자 할머니는 비록 그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축복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셔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신권은 축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두 다 도와 주기 위하여 지상에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줄 때 도와 줄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할머니에게 병자 축복할 때 도와 줄 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기도했다. 할머니는 며칠 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에게 어떤 것을 축복해 드릴까? 이전에 배운 대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령의 영향을 받도록 기다리려고 노력했다.

할머니의 병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할머니의 육신에 머물고 있는 병을 꾸짖으라고 성령이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할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할머니가 이생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도 되리라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할머니가 편히 쉬도록 병실을 떠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다. 원기를 회복하셨으며 마침내는 이따금 오후에 집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도움을 받아 걸음을 옮길 수도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선교사 토론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서 모두 다 배우고 받아들였으며 물론경을 읽으셨다.

할머니가 이 년 후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딸 즉 나의 장모님에게 이 세상에서 일 년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일주일도 안되어 할머니가 다시 축복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숨을 거두셨다.

할머니는 육체적으로 침례받을 수 없었으므로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할머니에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준비를 갖출 시간을 더 받았으며 마침내 준비를 마쳤을 때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우리는 이듬해 여름 할머니를 위한 성전 사업을 끝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내가 참석했던 모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였으며 그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머니의 자매와 조카는 그 이후로 교회에 들어왔으며 할머니의 다른 가족을 위한 성전 사업을 행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고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새로 태어난 선교사

수전 엠 프리본

나의 생애를 바꾼 그 선교사는 나의 새로 태어난 아들 리차드였다. 그는 기쁨 가운데 이 세상에 오고는 너무나 빨리 떠났다.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간증했다. 나는 그로부터 내가 만난 어떤 교사에게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스물 두 살이었고 다른 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나 나의 교회 이외의 곳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리처드가 몇 가지 선천적인 결함을 안고 태어났다. 나의 조용했던 존재 상태가 혼란한 상태로 변했다. 리처드는 우리와 함께 있는 몇 달 동안에 여러 번 병원에 다녔다. 하나 하나의 문제가 모두 그의 작은 육체를 해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예쁜 아기였다. 그로부터 지혜와 힘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의 미소와 부드럽고 평화로운 영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감동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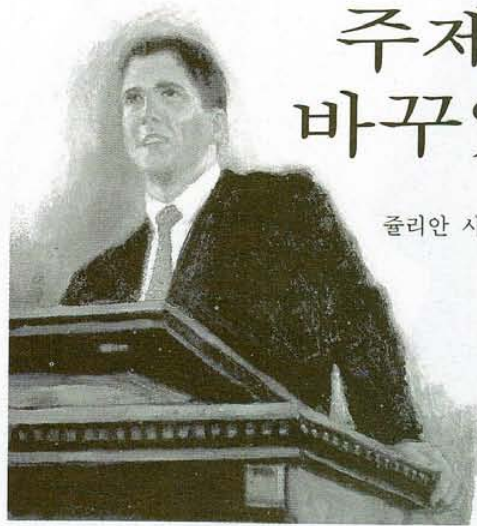
그 몇 달 동안 나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왜 내 아들이 그런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종교적인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에 대하여 발받고 있거나 내가 합당하지 못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범법에 대하여 무죄한 아기를 처벌하신다고 믿을 수는 없었다.

당시 우리 시대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해 있었으며 나에게 여러 가지 교회 책자를 주어 읽게 하셨다. 그것을 읽는 동안 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순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까지 겪은 고통은 지금 나의 길을 밝혀 주는 기쁨과 소망과 신앙에 비교해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선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약 삼 주 후에 리처드는 불과 몇 달 전에 떠나 왔던 그의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우리가 느꼈던 슬픔은 외로운 처음 며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었던 그의 다정한 영에 의하여 또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불과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지식에 의하여 위안받았다.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세 명의 귀여운 자녀가 태어났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리처드가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빛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나에게 지혜로써 이런 자녀를 보내 주시고 또한 보다 더 큰 지식 가운데 그를 다시 고향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한 마디 말 없이 복음을 전파한 이 작은 선교사로 인하여 매일 기뻐하고 있다. □

영이 주제를 바꾸었음



줄리안 시 로우

나는 1941년에 선교사로 일하던 중 서부 네브라스카에 있는 스코츠블라프 지방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어느 일요일 성찬식에서 말씀하도록 부탁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성신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으며 그것이 내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그 느낌을 따르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 느낌이 더욱 더 강하게 왔다. 마침내 나는 그곳에 모인 회중에게 그런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주제를 바꾸었다.

곧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청중석에서 다섯번째 정도의 줄에 핏치포드 가족이 앉아 있었다. 그 가족 중에 비회원인 아버지이며 남편인 맬콤 핏치포드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를 쳐다보았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말씀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맬콤이 즉시 나에게 달려와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고심했던 한 가지 고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늦게 핏치포드 자매가 맬콤이 항상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교회에서 자매가 활동하는 것을 지지해 왔지만 그 자신이 교회에 가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자매는 그날 오후 일찍 남편이 성찬식에 함께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마음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나는 노스플래트 강에서 맬콤을 침례하고 나중에 선교 사업이 끝난 후 핏치포드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을 때 증인이 되는 특권을 받았다. □



그림만 부부 이고와 베스나

멜린 데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음악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고와 베스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킨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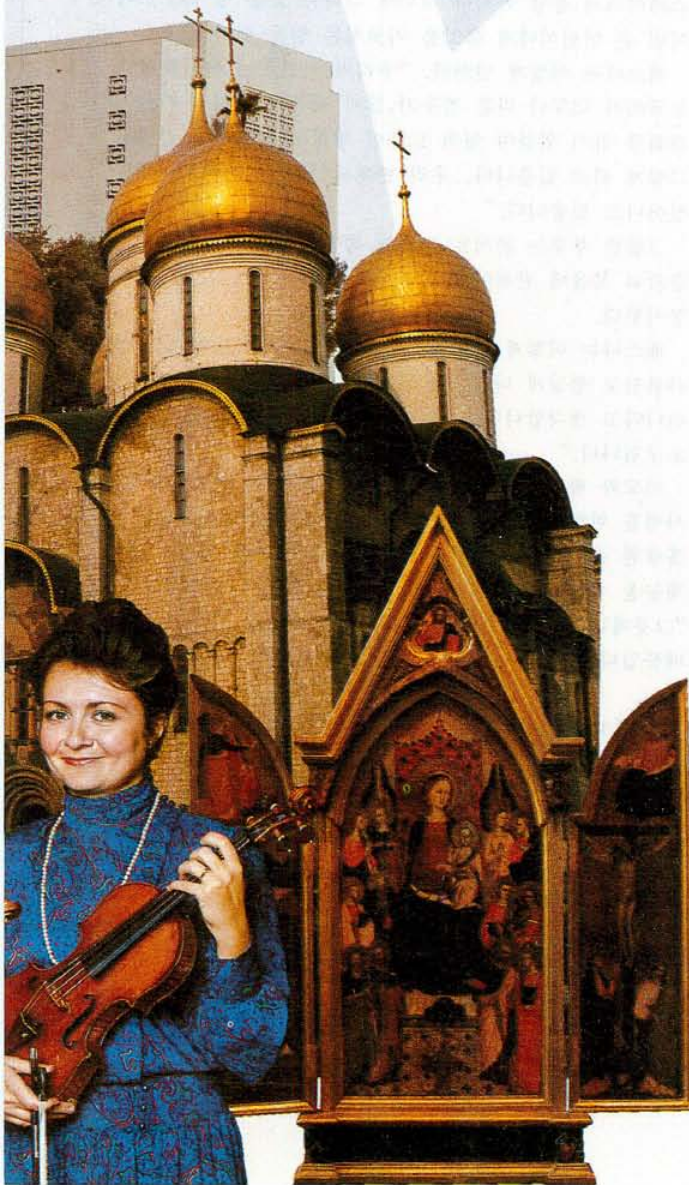
이 부부는 특출한 젊은 음악가를 위한 모스크바 센트럴 뮤직 학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1971년에 만났다. 이고는 1967년 11살에 고향인 소련의 키예브에서 전국 청소년 경연 대회에서 일등상을 받았다. 그는 열다섯 살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 훈련 센터의 하나인 모스크바 센트럴 뮤직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유고슬라비아의 니쉬에서 태어난 베스나는 열 살 때 벨그레이드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독주를 하고 있었다. 1969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녀의 재능과 명성이 커짐에 따라 그녀 역시 모스크바 센트럴 뮤직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고와 베스나는 급우가 되고 마침내 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소련에서는 결혼할 수 없었다.

케이 스티븐슨, 크렌던 가드너 이세 촬영

성도의 벗 / 87 10월호

35



이고는 이렇게 설명한다. “소련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당장 정치적인 망명자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의 재능은 ‘국가 보배’로 생각했지만 만일 우리가 결혼했다라면 당국에서는 신임하지 못했을 것이며 제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그 음악 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과정으로 모스크바의 유명한 차이콥스키 컨서버토리에 입학했다. 1979년에 유태계인 이고 가족은 유태인이 자유롭게 이민하던 기간에 소련을 떠나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고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졸업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그의 그런 의도가 알려지자마자 그 컨서버토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그들만 가족이 소련을 떠나도 좋다는 허가가 나왔으며 그들은 1979년 7월 15일에 미국에 도착했다. 이고와 베스나는 합의하여 베스나가 공부할 때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기로 했으며 그 다음에 1980년 7월에 미국에서 이고를 만났다.

그 기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괴롭고 고독한 날이었다. 이고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리스에 정착하여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자스카 하이켓츠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장학금을 받았으며 또 녹음 스튜디오에 가서도 연주했다. 한편 베스나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연주하며 벨그레이드(유고슬라비아)와 뮌히히(서독) 심포니와 협연했다. 그리고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왔으며 이고와 결혼했다.

베스나는 방향을 잡을 필요성과 확고한 신앙의 기반의 필요성을 느꼈다. 베스나는 “저는 러시아 정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엔젠가는 제가 진리를 찾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리라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남편과 함께 앉아서 성경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찾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라고 말한다. 어느 날 역시 소련에서 이민 온 이웃 사람이 바로 그 교회를 찾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들 후 두 명의 자매 선교사가 그룹만 부부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베스나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연구한 다음 1982년 4월에 침례받았다. 이고는 그녀와 함께 공부하고 교회에 참석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침례받을 결심을 하지 않았으나 베스나의

모범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침례받기 전에 교회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열세 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온 담배를 끊는 것에 대하여 특히 걱정했다.

그룹만 부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로 이사해서 샌디에고 북스테이크 제 7 와드에 열심히 다녔다. 이고는 담배를 끊었으며 1983년 8월에 침례받았다.

이고와 베스나는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고는 이렇게 말한다. “낮선 이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기가 나간 다른 사람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섭지요, 또 빛을 찾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물건과 부딪칩니다. 우리에게서 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고와 베스나는 두 사람 다 개인 교수를 하고 연주회를 하는 것 이외에도 샌디에고 심포니에서 일한다. 이고는 샌디에고 챔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이며 베스나는 샌디에고 오페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이들은 한 동안 교회에서 특이한 부름을 받고 봉사했다. 소속 스테이크의 동남 아시아 지부에 다니는 흐몽 및 라오스에서 이민 온 어린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베스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모국어가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하여 영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룹만 부부는 콘서트 노변의 밤을 열어 기악 연주도 하고 음악과 복음에 관하여 말씀함으로써 스테이크 선교사로도 봉사한다.

베스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음악이 그 안에서 성령이 아름답고 힘있게 나타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선교 사업 도구입니다.”

이고와 베스나는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즐겁게 사용한다. 이고는 “가장 훌륭한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그곳에는 진리를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선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살피 주심을 우리가 아노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낱알이 헤아리시고, 그의 자비로우심은 온 세상에 임하시느도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께 드리는 커다란 감사이니, 진정으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고와 베스나는 엘마서 26장 37절에 있는 성구와 간증을 가장 좋아한다.

혼자라고 느낄 때도

혼자가 아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열왕기하 6:16)

영광교회

파 티에 갔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술을 권한다.
“이봐, 친구 사이에 술 조금 마신다고 해서
너에게 해로울 것은 없어.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지?”라고 말한다.

어느 날 밤 친구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좋지 않은
영화가 나온다.

친구가 “야, 멋진 영화가 나오는데 이 영화 같이 보자.”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시험 때가 되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시험을 잘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친구 한 사람은
공부하지 않았으며 낙제하지 않으려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가 “네 답안지를 내기 전에 좀 베끼게 해줘.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을 알지.”라고 말한다.

우리는 때때로 친구에게 거절하거나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하자고 하는 친구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에게
그들의 생각과 또 더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친구에게 거절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거절하면서도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것도 가능하다.

“대가를 지불해야 함”

여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례가 있다.

스웨덴 헬싱보리그의 캐시 앤튼슨은 거절하는 것이 항상
쉽거나 즐겁지는 않다고 말한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때로 나는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로마로 2주 동안 수학 여행을 갔습니다. 이태리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포도주를 권하더군요. 거의 식사 때마다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포도주를
권했으며 그러면 나는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술마시는 일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술마실 때 쓰는 액수에 해당되는
돈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나는 굉장히
비싼 드레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그것을 보고
정말 놀라서 ‘어떻게 그런 옷을 살 여유가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것이 술마시지
않을 때 유익한 점의 하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캐시는 어렵지만 자신의 표준을 지킨 것이 기뻐다. 초급
대학을 졸업한 후(스웨덴에서는 16세부터 19세 사이의 학생은
초급 대학에 다닌다.) 한때 데이트했던 남학생이 그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내가 표준을
깨뜨리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무나 도덕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언제나 짜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내가 표준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자도 너만큼 존경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유우머 감각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유우머 감각이 친구에게 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브라이언 할버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나의 유우머 감각은 상당히 유용해서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내 친구들은 물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어떤 것을
지키는지 압니다.

“만일 농담이 효과가 없으면 나는 보통 ‘지금 당장 좀더

거절하면서도 친구를 잃지 않는 방법

크리스 크라우



나쁜 일을 해야 해. 네가 말하는 것을 지금 한다고 해도 그만큼 재미있지는 않을 거야.'라고만 말합니다. 나에게서는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다 나의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토머스 에베르하르트는 독일에서 약 3,000명이 사는 몰하임 마을에서 일곱 명밖에 안되는 말일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토머스의 친구는 대부분이 말일성도가 아니며 독일에서는 맥주를 너무나 흔히 마시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기회가 많이 있다.

“독일에서는 거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맥주를 마십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맥주를 한 잔 부어 줍니다.

“나는 우선 그들에게 맥주를 권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맥주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못들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관하여 또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조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들은 내 믿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공격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토머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침례받은 직후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는 19세 남자는 누구나 최소 15개월은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큰 지역 사회에서 살았으며 나는 당시 최근에 간증을 얻은 가르침과 계명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담배를 권하더군요. 나는 항상 예의바르게 그렇게 권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안한다고 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동료 군인들은 아무 문제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으며 그 파티에서 맥주를 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권한 것에 감사하고 술을 안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자 동료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왜 술을 안마시는지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생일 파티에 참석하도록 친절하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맥주나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들으셨겠지만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으며 바로 그것이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맥주를 권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리조나주 쉐들러의 엘리슨 보우먼은 그의 거절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설교하지 않고 단지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무례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 표준이 무엇인지 알리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타고 난 방법입니다. 그들이 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리조나로 이사했을 때 우리 토론 클래스에는 수업을 빼먹고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는 연상의 남학생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니요.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에도 함께 나가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만 16살이 되기 전에는 데이트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100번 이상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두 좋은 친구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푸에르트리코의 카닌 로호 출신으로서 최근에 개종한 윌프레도 페레즈는 언제나 친구가 많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교회에 가입한 날 많은 회원들이 제가 친구를 좀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말일성도가 되는 것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지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말하거나 행했던 것 중 몇 가지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저를 만년회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프레도, 들어와서 술이나 맥주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마셔.’

“나는 ‘고마와. 나는 술이나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 그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아, 이 파티를 네가 원하는 대로 즐겨.’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술을 마시거나 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즐겼습니다.”

“비회원 친구를 갖는 것은 중요함”

아리조나주 템피의 마크 레이는 친구 가운데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이 많지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비회원 친구를 갖되 그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회원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행하지만 나의 표준을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한번은 잘 아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수학 여행을 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들었을 때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맙지만 안 마셔’라고 말하고 그냥 같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꼈지만 그들이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물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주 거절하지 않아도 괜찮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나의 표준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불란서 몽드마산의 미셸 랑드리야는 말일성도가 극히 적은 마을에 살고 있다. 따라서 그의 친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론이 아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내 나이 또래에서는 나 혼자만 물론입니다. 다행인 것은 부친께서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담배나 술을 절대 가까이 안하시기 때문에 저의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술, 담배를 안한다는 것을 압니다.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라고 미셸이 설명한다. “정말로 미리 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때로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만일 남자 친구가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자고 하면 매우 확고한 태도로 거절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남자는 더 이상 친구가 안될 때가 가끔 있었읍니다.

“저는 언제나 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아니야. 이런 데이트는 안돼. 또는 이런 곳에는 못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트가 시작되고 나면 거절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데이트를 거절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친구에게 거절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 한 것은 아니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완전한 방법도 없다.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리 자신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경전을 연구하고 예언자의 권고에 귀기울이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해답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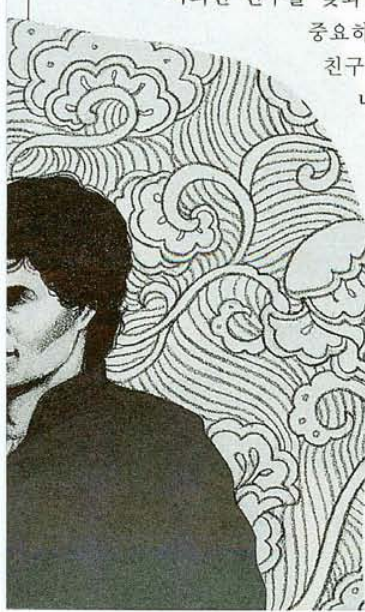
윌프레도 페레즈는 이렇게 말한다.

“비결은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이라고 해서 친구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담배나 술이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친구들은 지금도 친구이며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친구가 많습니다.”

엘리슨 보우먼은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일곱 살 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하여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다. 미리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면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거절하면서도 친구를 가질 수 있고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밤중의 노래

리사 에이 존슨

아 름다운 선율의 새소리같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습기차고 무거운 밤공기를 뚫고 들려 온다. 푸에르토리코와 그 주변의 몇몇 섬에 흔히 있는 작은 개구리들이 이제 막 일어나려는 훌륭한 일을 경축하여 그들의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 주는 것 같다.

그 노래는 수많은 청중이 모여 있는 교회의 창문이 열린 틈으로 새 들어온다. 그들이 기대에 차서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천정에 달린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그 건물을 장식하고 있는 종려나무 잎을 흔들어 주고 있다.

그 방의 앞쪽에서 그 정적을 깨뜨리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흰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계단을 내려 와서 침례탕에 들어가서 미소지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선다. 한 사람이 팔을 올렸다. 그리고 침례주고 받기 위한 자세로 손을 잡은 다음 힘있는 젊은이의 음성이 그 개구리 소리보다 드높이 솟아 올랐다.

한 젊은이가 그 사람에 의하여 물속에 잠기고 다시 미소짓고 일어선다. 지켜 보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도 그런 미소가 나타나 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젊어진 것이다.

산환 와드에서 가장 최근에 회원이 된 18세의 게라드 아퀴레는 17세의 파블로 샤베즈를 안 지 몇 주밖에 안됐지만 샤베즈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에 참석한 다음에는 그 두 사람은 영원한 형제가 된 것 같았다. 그가 파블로에게 침례받고 싶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파블로와 게라드는 푸에르토리코의 전형적인 말일성도 젊은이다. 이 섬의 모국어는 서반어이지만 모든 사람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며 이 제 2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부는 파블로처럼 여러 해 동안 교회

회원으로 지내 왔으며 미국 본토로 여행해서 성전에서 가족과 함께 인봉받기까지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게라드처럼 최근에 와서야 교회의 가르침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과 모범은 마치 그 개구리의 노래가 밤의 찬란함을 더해 주는 것처럼 그들 문화에 빛을 더해 주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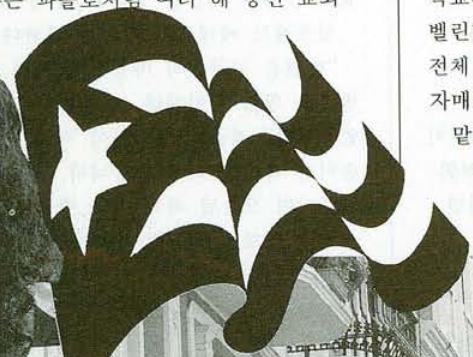
푸에르토리코 섬은 미국의 자치령으로써 대서양과 카리브해의 경계선에 놓여 있고 플로리다주 동남쪽으로 약 160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약 십오 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때 이후로 이 섬의 열대성 해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변형했으며 이제 와서는 세 스테이크와 많은 지방부가 있다. 이 구역에서는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보게 된다.

트루질로 알토 장미반 회장인 15세의 제넷 모랄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생활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모두 다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그저 좋기만 합니다.”

제넷과 그의 언니인 18세의 리디아와 16세의 디오니는 약 오년 반 전에 부모와 함께 교회에 들어왔다. 현재 청년 회장단 제일보좌이며 꿈벌반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리디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에게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십대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랄리스 자매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비회원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른 말일성도 십대들도 그들의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벨린다 베리오스는 1984년에 푸에르토리코 전체 미스 십대로 뽑혔으며 모랄리스 자매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봉사해 왔다. 그들은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왜 그렇게 특별하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친구들의 관심은 보통 존경심과 호기심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경멸과 비웃음이 되기도 한다.

월계반 제일보좌이며 세미나리 서기로 일하는 디오니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런 일로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좀더 듣고 싶어합니다.”

이 섬의 주민이 모두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회 홍보를 통하여 적어도 그 진리를 알고는 있다.

사실상 새로 침례받은 게라드가 애초에 교회에 관하여 알게 된 것도 이 홍보 덕분이었다. 이 키가 크고 잘 생긴 젊은이는 자막에 얼른 나왔다가 사라진 주소로 편지를 써서 푸에르토리코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나고

문의했다. 게라드를 방문하도록

선교사를 보냈으며 그는 곧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토론을 배우기 시작했다.

게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인장이 자라는 지역으로

가서 트이어 있는 평평한

곳을 찾아내고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영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영을 느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 교육을 별로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일단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게라드를 파블로와 그의 열다섯 살된 동생 마리오와 부모에게 소개해 주었다. 게라드는 곧 그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푸에르토리코의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어른과 십대 청소년이 마치 모두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함께 어울린다. 그들은 서로 애정에 찬 존경심을 품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교적인 모임에서 십대 청소년이 어른과 떨어져서 따로 있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샤베즈 가족은 게라드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돕는 일을 기쁘게 여겼으며 게라드가 침례받기로 결정하고 맨 처음

질문한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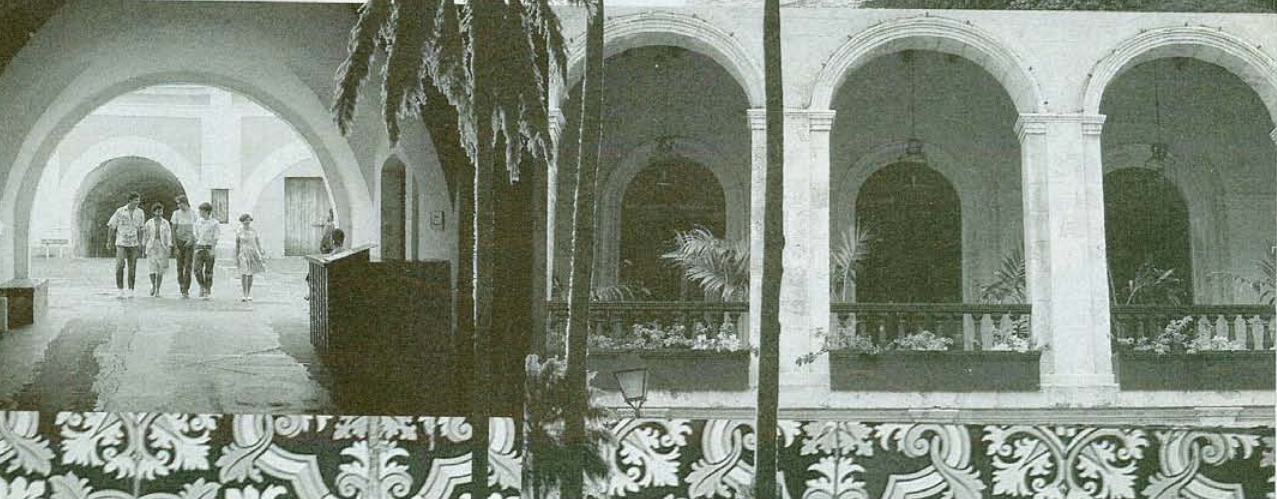
이 질문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네트 토마스 리사 존슨 촬영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질문이다. 파블로는 자신의 선교 사업 비용을 벌기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의 그림 액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만 17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봉사할 시간이 오면 그는 다른 면에서도 준비를 잘 갖추게 될 것이다.

청소년을 담당하는 와드 지도자들은 선교 사업을 위한 영적인 준비와 물질적인 준비를 모두 강조하며 매달 셋째주에는 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소년들에게 요리, 영양, 복장, 자전거 및 자동차 보수, 바느질, 예절 등의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또 이 시간에는 선교사와 와드 지도자들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젊은이들은 전 세계의 말일성도 십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로드쇼를 좋아하며 매년 다음 번 청소년 대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들은 또 스테이크 체육 대회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특히 배구와 농구를 좋아한다. 소년단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웅변 대회, 노변의 모임, 일출 예배 등은 정규 활동이 되어 있다. 푸에르토리코에 살기 때문에 누리는 한 가지 좋은 점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해변에서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수많은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생활은 쉬운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곳의 십대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른 십대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동년배 친구들의 압력은 푸에르토리코 젊은이들의 주된 걱정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친구를 찾으며 그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압력을 많이 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리디가 말하는데 그 말은 그녀의 수많은 말일성도 친구들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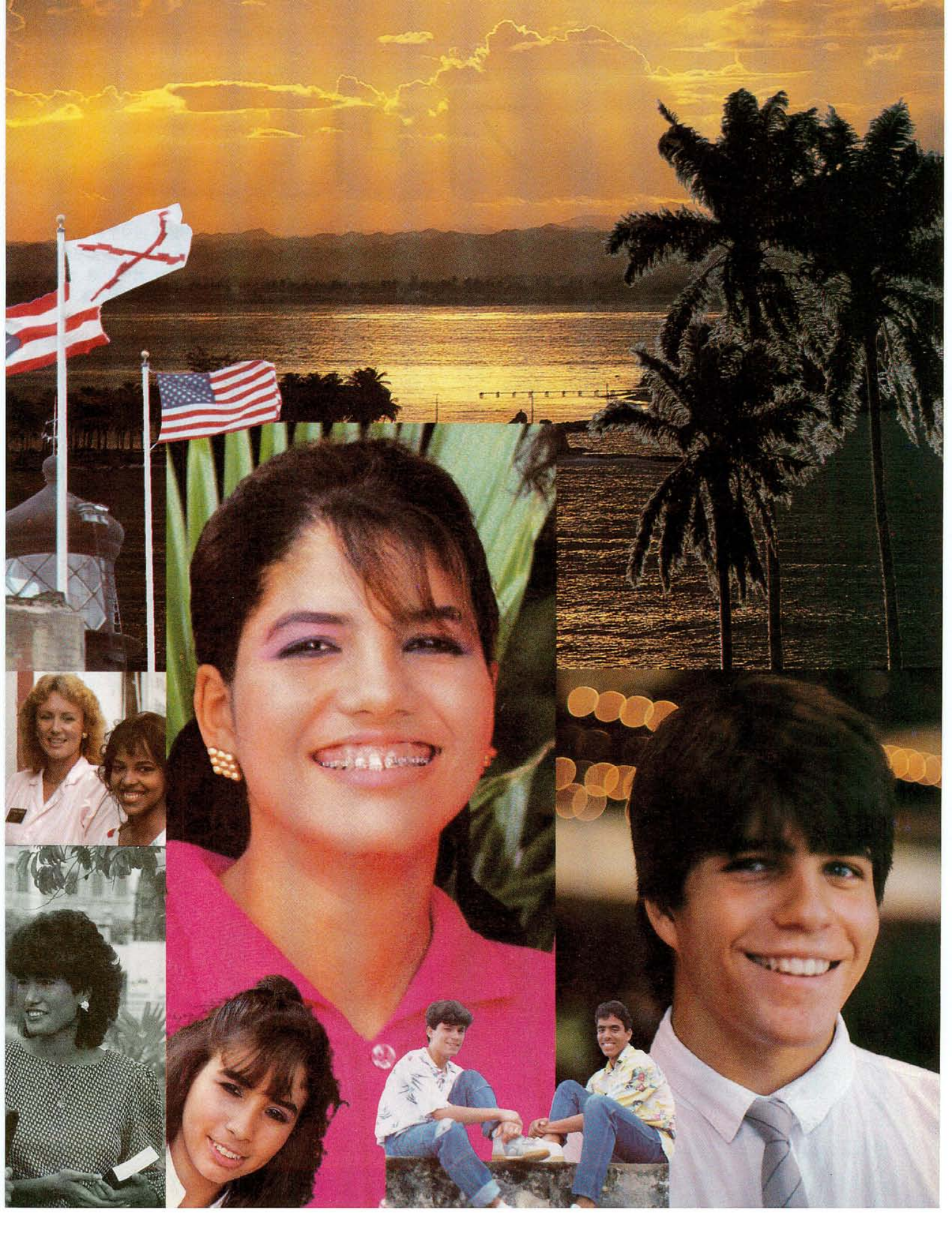
이 섬의 대부분 젊은이들이 동의할 진정한 문제는 일반적인 세상 전체로부터 오는 압력이다. 파블로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평을 받으려면 거칠고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동생 마리오도 동의하며 이렇게 말한다. “어디를 보아도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곳으로 가도록 충동질하는 사람들과 사물이 있습니다.” 이 두 소년은 모두 가정의 밤 등과 같은 교회 활동 및 프로그램과 개인적인 경전 연구가 합쳐질 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젊은이들은 그들의 스페인 조상들이 신 세계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견고히 지키기 위하여 이 섬을 활용한 것처럼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견고히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활용한다. 푸에르토리코라는 이름 그 자체가 “부유한 항구”를 의미하며 한때는 스페인의 카리브해 제국의 전략적인 요새였다. 튼튼한 요새가 이 섬의 해안선에 퍼져 있으며 스페인 사람들은 이 두터운 성벽에서 해적 침략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했다.

오늘날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푸에르토리코를 교회의 요새로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말일성도 젊은이의 음성은 마치 그곳의 개구리 소리와 흡사하다. 그 작은 개구리는 아무리 커도 5센티미터밖에 안되지만 그 개구리의 맑고 감미로운 노래는 한밤에 평화로운 선율을 가미해 준다. □



PUERTO RICO



거미

데이비드 브린리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일학교로 급하게 가는 활력이 넘치는 일본인으로 가득 찬 교회의 그 복잡한 휴게실 한가운데에서 그 작은 거미는 정말로 무의미한 존재였다. 그 거미는 처음에는 벽난로 밑에서 나왔으며 그 자그마한 갈색의 점은 그 홀의 중앙을 향하여 천천히 나아갔다. 그 거미가 힘들어서 간 거리가 약 일 미터쯤 되었을 때 대부분의 회원이 다 도착해서 홀에서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나의 맨 처음의 충동은 그 거미를 벽난로 밑으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발로 그것을 밟고 싶은 좀더 어린애같은 생각이 났다. 그 거미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곧 호기심이 이 잔인한 마음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거미의 남은 생애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그 거미가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동안 점점 더 그렇게 보였다. 나는 그 거미에 정신이 팔려 꼼짝 않고 서서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 필연적이고도 우발적인 발걸음을 기대하며 지켜 보고 있었다.

나는 지방부장인 타시로 형제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분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팔에 카세트 녹음기와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불안정하게 끼고 다른 모임으로 가기 위하여 바깥 문을 통하여 급히 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좀 시간이 늦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분의 마음은 한 선교부 산하 지방부를 운영하는 끝없는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분이 어떻게 된 셈인지 군중 속에서 그 거미를 본 것이다. 그분은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는 짐을 내려 놓고 인사를 나누고 군중과 헤어진 다음 몸을 숙여서 거미를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 놓은 다음 바깥의 좀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그는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그 다음 모임을 향하여 급히 갔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며 그런 겸손한 주님의 종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행위였다. 그 순간 이와 비슷한 놀라운 일이 생각났다. 상상의 세계에서 구세주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는 복잡한 일을 멈추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를 위하여, 끝없는 영원한 복도에서 무의미한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같이 보이는 인간을 직접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을 치르시려고 허리를 숙이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거룩한 헌신으로 인간을 어떤 운명으로부터 들어올리시고 인간이 생명을 영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보장된 환경으로 옮겨 놓아 주셨다.

나는 구세주의 이 큰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수많은 일본인에 대하여 생각했다. 나는 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이다. 주일학교 분반 교실로 황급히 가는 동안 새로운 결심이 내 가슴을 채웠다. 다음에는 내가 그 거미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 하고 결심했다. □



나는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차 정거장의 플랫폼에 서
있었다. 나는 유타주
브리감 영 대학의 낯선 나라와 새로운
생활을 향하여 웨일즈에 있는 우리
집을 떠나고 있었다. 나의 짐은 이미
기차에 다 실었으며 남은 일은
부친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몇 초 동안 꼭
끌어안고 있었다. 부친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귓속말을 하셨다. “넌
잘 해낼거다. 나는 널 믿는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기차에 오르도록
가볍게 앞으로 밀어 내셨다.

손을 흔드는 부친의 키 큰 모습이
천천히 시야에서 벗어나자 공허감이
온통 나를 엄습했다. 나는 황량한
곳에 홀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낮익은 푸른 들과 늘어진
관목과 회색의 석조 오두막집들이
시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즐겁게
답소하는 부인 승객과 신문 넘기는
소리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 속에
파묻혀서 들리지를 않았다.

그는 두 살된 남동생을 등에 업고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이리 와, 시안. 내 손을 잡아. 함께
건너자.” 그의 음성은 확신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만 내 무릎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흔들리는 구름
다리가 그 위를 걷는 사람의 무게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까마득한 발밑의 골짜기에서 급류가
으르렁거리고 그 위에 걸린 다리를
지탱하는 로프가 빼겨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어린 나이로
공학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나 나는 그 다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나는 무서워서 떨면서 한
걸음 물러났다.

“시안.”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또 집요했다.
“나를 봐.” 나는 그의 튼튼하고
관심어린 얼굴을 보았다. “나를

신앙을 배움

시안 베시



믿어라, 괜찮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 보고
그 흔들리는 다리 위로 올라 섰다. 그

스코트 스노우 그림



그 때 아버지의 눈을 올려다 보면서 그 순간 그 표정은 나 자신의 표정을 반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표정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네가 결심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네가 결심한 것은 할 수 있다.



다리는 신음 소리를 냈으며 나는 가냘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뿜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꼭 잡았으며 문득 우리가 모두 무사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큰 손을 믿고 의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고 정복할 때 흥분하는 것을 부친이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내가 영국의 웨일즈에서 가장 높은 산인 스노우딘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부친이 바로 그런 표정을 지으셨다. 산 허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옛날에 광부가 다니던 길은 우리가 밭을 디딜 때마다 움직이는 험거운 바위로 뒤덮여 있었다. 거치른 회색 바위와 흩어져 있는 둥근 돌은 창공의 푸른 하늘과 흰구름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풀을 뜯을 장소를 찾고 있는 길 잃은 양의 옆을 지나게 되었다. 이 튼튼한 짐승은 행인이 지나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쳐다보지도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짧은 다리가 피곤하고 아프기 시작했다. 그 회색의 오솔길은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아버지는 “이리 와, 시안. 너는 해낼 수 있어.”라고 달래시며 나를 들어서 등에 업으셨다. 그리하여 부친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려웠지만 내가 원기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은 잊혀진 목동이 옛날에 지은 부서져 내리고 있는 석벽 옆을 터벅터벅 지나쳐 갔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마치 산의 얼굴에 남은 큰 상처같이 보였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비탈길에 도달했다. 우리가 그 비탈길을 기어 올라 갈 때 아빠가 내 손을 꼭 쥐어 주셨다.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밑에서 사람들이 총천연색 개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눈길이 닿는 곳에는 온통 산봉우리과 깊은 계곡과 멀리 북해의 푸른 바다가 번쩍거리는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경외심에 싸여서 응시하다가 흥분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산꼭대기에 도달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을 올려다 보면서 그 순간 그 표정은 나 자신의 표정을 반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표정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네가 결심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의 의식의 먼 구석에서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 단조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나 내 생각은 여전히 먼 옛날을 더듬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영원한 유대 관계가 발전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믿었던 마음이 내가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성숙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이 함께 공유했던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던 것이다.

어쩐지 이런 개념은 낯익은 것 같이 보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와 관계도 이렇게 확립되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육신의 어린이 시절과 마찬가지로 나의 전세에서의 생활도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쌓은 시기였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배웠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시며 또 이 새로운 생활에서 선을 이룩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늘 나라의 집을 떠났던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 느낌은 내가 마음 속으로 느꼈던 공허하고 아픈 것을 천천히 감싸 주었다. 내가 아무리 지상의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여행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와서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고 믿었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대 관계가 하늘에 계신 부모와 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커짐에 따라 나에게 대한 그분의 믿음과 신뢰심도 역시 커질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계실 것이며 나의 신앙을 강하게 유지시킨다면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 유대 관계를 영원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

